



'자스민 광주' 첫 선 광주문화재단이 제작한 광주브랜드 공연 '자스민 광주'가 2일 광주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첫 선을 보였다. 광주 5월을 소재로 한 '자스민 광주'는 오는 8월 13~19일 영국 에딘버러에서도 공연된다. > 관련기사 12면 / 최현배기자 choi@

관람객 1000만... 승용차만 주말 하루 6만대 여수박람회 교통대란 걱정

버스·철도·항공기도 턱없이 부족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2012 여수 세계박람회'에 1000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통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승용차 뿐만 아니라 고속·시외버스와 철도, 항공기 운행횟수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3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국교통연구원은 최근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의뢰한 도로교통 안내·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2012 여수세계박람회 교통대책 설계용역 최종보고서'를 통해 박람회 기간 중 1047만9000명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용역팀은 최종보고서에서 전체 관람객 중 승용차 이용 관람객이 647만 7000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관람객이 몰리는 주말에는 여수를 찾는

승용차가 하루 최대 6만2755대(순천·호남 방면 4만5045대, 광양·영남 방면 1만7709대)에 달할 것으로 진단했다. 최근 여수박람회조직위원회가 6개소 153만1000㎡에 조성중인 환승 주차장(승용차 3만3087대·대형버스 864대) 규모를 감안하면 '주차 대란'이 불가피한 셈이다.

대중 교통 수단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연구원은 전체 관람객 중 고속·시외버스, 철도, 항공, 행운 등을 통해 400만명이 찾을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여수로 연결되는 고속·시외버스가 하루 252대 수준이지만 가장 많은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말에만 1452대의 버스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철도 수송 대책도 비상이 걸렸다. 대중 교통 수단 중 수송분담률이 12.

5%인 철도를 이용할 관람객은 131만 2000명으로, 주말 하루 예상 최대 관람객만 4만2237명으로 분석됐다. KTX-1의 하루 수송 능력(주말 5790명)을 고려하면 주말 최대 40편의 증편 운행이 이뤄져야 원활한 관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주말 항공기를 이용, 박람회장을 찾을 관람객도 1만명에 달한다는 용역 보고서를 고려하면 항공기도 주말 최대 93편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대중 교통 수송 대책이 원활하게 마련되지 않을 경우 승용차 이용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만큼 '교통 지옥'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용역팀은 주말 하루 관람객이 각각 26만4000명과 36만3000명에 이르는 5월과 8월 주말의 경우 여수시와 행사장의 수용 한계를 초과할 것으로 진단했다.

/김지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라선 KTX 시속 150km라니...

엑스포 지원 9월 투입... "230km로 높여 달라" 요구 빗발

오는 9월 전라선에 투입될 예정인 KTX의 속도가 새마을호 수준인 시속 150km에 불과해 '말뚝인 KTX'란 지적이 일고 있다.

전라선 KTX는 여수엑스포의 성공 개회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교통망 분산에 절대적인 역할을 할 엑스포의 지원시설 가운데 하나다. 이에 따라 여수시를 중심으로 전라선 KTX의 속도를 시속 230km까지 높여줄 것을 요

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3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전라선(익산~여수간 187.9km) 개량 및 복선 전철화 사업 완료 후 9월말까지 전라선에도 KTX가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설계상으로는 전라선 KTX의 속도가 새마을호의 최대 속도인 시속 150km에 불과해 무난한 KTX란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당초 전라선 복선 전철화 구간 속도를 시속 230km로 할 계획이었으나 비용부담을 이유로 계획보다 80km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여수 등 전남 동부권 주민들은 신규 철로를 깔지 않고도 기존 시설에 신호시스템을 구축하고 통신시설을 정비하는 최소한의 투자로 서울~여수간 소요시간을 30분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며 정부측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전라선에 시속 150km

의 KTX가 투입되면 서울~여수간 소요시간이 3시간 21분이지만 시속 230km로 달릴 경우 2시간 51분으로 줄어 들게 된다.

주민들은 기관사가 육안으로 신호를 관별하는 현행 '지상신호 방식'을 컴퓨터와 통신기술을 활용해 기관실 내 모니터를 보고 운전하는 '차상신호 방식'으로 바꾸면 230km까지 속도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 같은 신호체계 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은 4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여수 YMCA 관계자는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에 이미 1조원이나 들인 마당에 400억원을 추가 투입하지 않는 것은 의지의 문제"라며 "전라선 KTX가 여수엑스포의 성공 개회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한나라 새 지도부 오늘 선출

내년 총선을 이끌 한나라당의 새 지도부가 4일 오후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제12차 전당대회에서 선출된다. 이를 위해 3일 광주(5곳)·전남(22곳)·전북(15곳)을 비롯한 전국 251개 투표소에서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 3000명 대상 여론조사 실시됐다. <관련기사 4면>

이번 7·4 전당대회는 한나라당이 '통합과 쇄신'을 화두로 총선 승리를 향한 새 좌표를 설정하는 중대 분수

령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4명을 선출하는 선거를 앞두고 남경필·홍준표·권영세·박진·원희룡·나경원·유승민 등 7명의 후보는 막판까지 예측불허의 각축전을 벌였다. 광주에서는 5142명의 선거인단이, 전남에서는 7998명의 선거인단이 구성됐지만, 장맛비 속에서 치러져 투표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가정폭력상담원
교육일시 : 2011년 7월 4일(월)~
매주 월, 화, 목, 금 18:00 ~ (총100시간)
☎ 062)605-1112, 1063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알림

해설이 있는 명품 음악회

광주일보사와 광주문화재단(관장 유종성)이 시민 여러분을 '해설이 있는 음악회'에 초대합니다.

광주일보사는 올해로 개관 20주년을 맞는 광주문화재단과 함께 오는 6일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의 정기연주회를 시작으로 매일 한차례 명품해설이 곁들여진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12월까지 이어지는 이번 음악회는 클래식, 오페라, 발레, 국악, 합창 등 다양한 장르의 전문가들이 해설가로 나섭니다. 광주문화재단 개관 20주년 특별기획으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 무료입장 ■ 문의 062-613-8350, 062-220-0651 <관련기사 12면>

● 7월6일 = 최종민교수와 함께 즐기는 국악 공연 (오후 7시30분·광주문화재단 소극장)
최종민 =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겸임교수, 국립극장 예술진흥회 회장, 국악방송 '국악산책' 진행



● 8월31일 = 이음숙과 함께 하는 오페라, 그 행복한 중독 (오후 8시·광주문화재단 소극장)
이음숙 = 음악평론가, 독일 프랑크푸르트대 음악학과, 평화방송 '음악공감' 등 출연.



● 9월11일 = 윤진철과 함께 하는 한가위 국악한 마당 (오후 7시30분·광주문화재단 소극장)
윤진철 = 광주시립국극단 예술감독, 광주MBC '우리가락 우리문화' 진행, 한국방송대상 국악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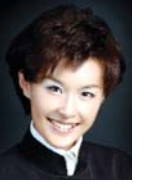
● 10월27일 = 장일범과 함께 하는 광주시향 수시 연주회 (오후 8시·광주문화재단 대극장)
장일범 = 음악평론가, KBS클래식 FM '장일범의 가정음악' 진행, 모스콥카 차이코프스키 음악인 수확



● 11월10일 = 김유미와 함께 만나는 발레 '성용이순신' (오후 7시30분·광주문화재단 대극장)
김유미 = 광주시립무용단장, 한국발레협회 이사, 창작발레 '명성왕후' '오월의 빛' 등 연출



● 12월30일 = 이어진과 함께 하는 합창공연 '아듀! 2011년' (오후 7시30분·광주문화재단 대극장)
이어진 =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장 겸 지휘자, 전 광주 평화방송 '평화음악실' PD.



화병 이젠 한방(韓方)으로 다스린다

자연과 몸을 하나로 만드는 경희한의원

대한한약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70531-중-359호

미국 정신과 협회는 96년 화병을 한국인에게서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으로 일종의 문화충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체면, 도리, 의무감을 중시하고 참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진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화병의 원인은 계속되는 스트레스, 억울한 감정, 억압적 환경, 자신의 이상과 맞지 않는 현실, 충격, 자식이나 배우자 외의 사별, 타인으로부터 서운한 감정, 사업의 실패, 억눌린 감정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제때에 신체에서 소화해내지 못하면 심장병, 중풍, 고혈압, 두통, 당뇨병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아 화병은 무서운 질병 중의 하나입니다.

화병의 가장 큰 신체적 특징은 상체로 혈액이 몰려서 열이 많아지고 하체는 혈액공급량이 적어서 허약해지고 차가워지는 현상 즉, 상열하한(上熱下寒)입니다. 상체의 증상으로 울혈증상이 있습니다. 인체의 상체로 피가 몰리는 현상으로 상체의 혈관이 팽창되어 안면홍조,

눈의 충열, 심장이 두근거림, 고혈압, 숨이 차고, 귀 울림, 목 근육 경직, 두통, 어지러움, 기억력 감퇴가 오며, 머리에 열이 많아 땀이 많아집니다. 또한 상열증상으로 인해 얼굴 피부건조, 마른기침, 끈끈한 가래, 비염, 안구 건조감, 탈모, 시력저하 등이 올 수 있습니다.

하체에는 스트레스, 성질, 화를 낼 때마다 혈액과 영양분이 상체로 올라가니 하체는 자연히 혈액공급량이 적어져 대장, 방광, 자궁, 골반, 허리, 무릎 다리가 차가워지고 하체전반부에 기능저하가 나타납니다. 하복부냉감, 대장(변비, 설사), 방광(요실금, 만성방광염), 자궁(생리통, 냉대하, 자궁암, 자궁근종), 골반(만성골반염, 요통, 디스크), 무릎관절염, 다리가 저리고 시린 증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 화병이 오래 지속되면 전신의 기운이 약해져 전신 무력감, 불면증, 우울증, 의욕저하 만성피로가 되고, 음식물을 먹어도 기운이 나지 않고, 먹어도 항상 속이 허하고 힘을

쓰지 못합니다. 결국 화병은 가능한 빠른 시간에 해소하는 것이 최상책이며 운동치료를 통해 해결하는 것도 좋습니다. 환자 각각에게 어떠한 운동을 하라고 정해 주기도 하지만 각자 여러가지 운동을 해보아서 가장 스트레스가 잘 풀리는 운동을 택하면 됩니다. 어떤 운동을 하고 나서 더 스트레스 받고 열을 더 받을때는 그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매일 30분 이상 즐거운 생각을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나고 즐거운 음악을 틀어놓고 따라 부르거나 몸을 흔들며 춤을 추는 것도 정신과 육체의 스트레스를 푸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신체의 균형과 안정을 취해주는 한약 및 침을 사용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마음이 안정되게 하며, 상체열을 하강시키고 하체는 따뜻하게 하여 심장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치료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희한의원> 전 선형 원장

진료 과목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침구과

진료 안내 ● 화병 / 스트레스 질환
- 불안, 초조, 가슴떨림 - 상열감, 안면홍조, 냉면지 장애
- 신경성 두통, 불면증, 우울증 - 수험생 집중력 저하

진료 과목 평 일 : 오전 9:30~12:30 / 오후 2:00~6:30
토요일 : 오후 4시까지 진료 공휴일/일요일 : 휴진

진료 안내 TEL 062)365-1541
광주 서구 화정동 추신회관 건너편 * 주차장 안내 * (진료실 옆 패밀리카센터)

화정동 주택은행추신회관

송정리 <송정리> <송정리> <송정리>

도교계 <도교계> <도교계> <도교계>

중양병원 <중양병원> <중양병원> <중양병원>

경희한의원 <경희한의원> <경희한의원> <경희한의원>